

편지의 힘

이 종 탁*

어느 네티즌이 지식검색에 질문을 올렸다. “어머님 전상서 할 때 전상서는 한자로 어떻게 쓰나요?” 여기에 올라온 답이 무릎을 치게 만든다. “싸울 戰, 윗 上, 글 書라고 씁니다. 전쟁터에서 올리는 글이라는 뜻이지요.”

글의 분위기에서 마침 아는 질문이 나왔다는 듯한 반가움과 자신감, 내가 아는 걸 남에게 친절히 알려준다는 자부심이 엿보인다. 피식 웃고 넘기기에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한다. 요즘 젊은이들이 한자를 잘 모른다는 점 외에 이들 머릿속에 어머니에게 쓰는 편지는 군대라는 특수 집단에서 행해지는 군인들만의 문화로 각인돼 있음을 알 수 있다.

하긴 어머님 전상서(前上書)로 시작하는 편지는 군인의 전유물과 같다. 남자는 아무리 철부지라도 머리 깎고 군복을 입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어른이 된다. 고된 훈련에, 까다로운 내무생활에 밤마다 집이 그리워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 같다가도 하얀 종이와 볼펜 하나 손에 쥐면 갑자기 군대에 다 적응한 것처럼 의연해진다. 하나같이 “저는 아무 탈 없이 훈련 잘 받고 몸 건강히 있으니 걱정 하지 마시라”고 쓴다. 누가 시켜서 그러는 게 아니다. 어머니를 안심시키고자 하는 자식의 진심이다. 이 때 쓰는 편지의 시작이 사회에선 입에 담아보지 않았던 ‘어머님 전상서’다. 그러니 ‘전상서’를 군대 언어인줄 잘못 아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군에 다녀온 한국 남자치고 ‘어머님 전상서’를 안 써본 사람은 없을 것이다. 군인은 어머님 전

* 신한대 언론학과 교수, jtlee1024@naver.com

상서를 쓰면서 모정을 느끼고, 어머니는 그 '전상서'를 보면서 가족의 행복을 느낀다. '어머니 전상서'는 어머니와 아들을 거듭나게 하고, 군대와 사회를 연결시켜주는 다리의 언어인 셈이다.

어렸을 때 나의 어머니는 군에 간 큰 아들이 보내오는 편지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다. 품속에 넣어두고 틈날 때마다 꺼내 보면서 눈물을 흘리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편지 내용이 야 뻔한 것이었겠지만 어머니는 아들의 마음을 행여 한 구석이라도 놓칠 새라 글귀 하나 하나를 되새김질하듯 읽고 또 읽었다. 그러면서 자식이 군에서 고생하는데 이까짓 어려움쯤이야 하는 표정을 짓곤 했다. 형이 보내오는 '어머님 전상서'가 어머니의 삶을 지탱해주는 원동력이었던 것이다.

흔히 편지를 소통(疏通)의 매체라고 한다. 쓰는 사람은 받는 사람의 처지를 헤아려 쓰고, 받는 사람은 쓰는 사람의 심정을 더듬어가며 읽는 게 편지이기 때문이다. 쓰는 자와 읽는 자가 종이 한 장 위에서 통(通)하는 것이다.

소통은 종종 기적을 낳는다. 2011년 미국 여론조사기관인 갤럽이 미국인을 상대로 가장 위대한 대통령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보니 레이건 대통령이 1위에 꼽혔다. 할리우드 배우출신이 쟁쟁한 정치 사상가 대통령들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조사시점이 레이건 탄생 100주년이라는 시기적 요인도 작용했지만 레이건의 탁월한 소통능력 덕분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레이건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편지를 많이 쓴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부인 낸시에게 평생 사랑의 편지를 보내는 것은 물론 업무와 관련해서도 의회 지도자를 비롯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육필 편지를 써 협조를 구하곤 했다. 백악관 재임 8년동안 쓴 편지만 9,000통에 달한다고 한다. 위대한 대통령 1위에 오른 게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다.

편지는 교육에도 효과 만점이다. 편지쓰기 만큼 글쓰기 연습이 되는 것도 없다. 연애편지에 멋진 문장 하나를 담기 위해 머리를 쥐어짰던 청소년 시절의 기억을 떠올려보면 답이 금방 나온다.

세계적 수학자인 영국 옥스퍼드대 김민형 교수는 얼마 전 아들에게 쓴 20여통의 편지를 묶어 '아빠의 수학여행'이란 책을 냈다. 아들과 편지를 통해 대화하는 법은 아버지인 고려대 김우창 명예교수에게서 배운 것이라고 한다. 3대에 걸쳐 대물림된 자녀교육법이 편지쓰기인 셈이다.

편지는 이렇게 여러 방면에서 우리 삶을 살찌운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활에서

편지가 점점 멀어져가고 있다는 현실이다.

편지가 담론일 때는 모두 한 목소리를 낸다. 예찬 일색이다. 하지만 담론의 장을 벗어나 실천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아무도 호응하지 않는다. 하얀 종이위에 펜 들고 써내려가는 것을 번거로운 수고라고 생각해 외면한다. 디지털이 주는 간편함에 이미 깊게 중독돼 있는 것이다.

우정사업본부가 얼마 전 진행한 '5,000만 편지쓰기' 축제는 이런 세태를 향해 던진 신선한 자극의 바람이라고 할 수 있겠다. 편지를 잊고 있던 사회에 편지의 가치를 분명히 일깨워주었기 때문이다. 적어도 축제 참가자들 만큼은 편지가 사라지면 감성이 메마르고 감성이 메마르면 우리 영혼마저 스러져간다는 점을 절감하게 되지 않았을까.

편지쓰기를 왜 국가기관이 나서서 캠페인 하느냐며 못 마땅해 하는 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편지쓰기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가 시민사회와 더불어 범사회적 운동을 벌여야 할 이슈다. 미국 우정청(USPS)은 정기적으로 편지쓰기 캠페인을 하고 있고 유엔기구인 만국우편연합(UPU)에서는 전 세계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년 편지쓰기 대회를 하고 있다. 미 백악관은 국민들이 보내온 편지 중 매일 10개를 추려서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오바마 대통령은 이 편지의 주인공을 직접 찾아가 만나는 등의 방식으로 편지쓰기 캠페인을 측면 지원하고 있다. 한국에서 '어머님 전상서'가 편지쓰기의 전범(典範)이라면 미국에선 '대통령 전상서'가 위력을 발휘하는 셈이다. 어느 쪽이든 편지의 힘은 살아 있다.